



1292일 만에 승리, 간절한 마음 “한 순간도 야구를 놓은 적 없다”

KIA 한승혁, 7이닝 2실점 6탈삼진 호투 시즌 첫 승리...개인 최다이닝 신기록도

“나 역시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한순간도 야구를 놓으려고 한 적이 없다” KIA 타이거즈 한승혁은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7피안타 1볼넷 6탈삼진 2실점 호투로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2018년 10월 10일 광주 한화전 승리 이후 1292일 만에 승리다. 키움전 승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7이닝은 개인 최다이닝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승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타선이 득점을 많이 내줬고 수비 도움도 많이 받았다. 점수를 주더라도 볼넷으로 주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덕분에 처음으로 길게 던진 것 같다. 오늘은 점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승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스프링캠프에서 5선발 경쟁을 한 한승혁은 시즌 초반 출발이 좋다. 올 시즌 3경기(17%이닝) 1승 평균자책점 2.04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지금도 5선발 자리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한승혁은 “안아프다면 잘 던지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캠프에서부터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랫동안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한승혁은 매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 시즌 8경기(23%이닝) 3패 평균자책점 4.56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 시즌에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제 야구를 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한승혁은 “사실 많이 간절했다. 군대에 갔다 오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 역시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한순간도 야구를 놓으려고 한 적이 없다. 제대를 하고 나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정해진 목표는 없다”라고 말한 한승혁은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 데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긴다. 그래도 우선은 안 아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팀이 가을야구에 가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남은 시즌 각오를 다졌다.

뉴스스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야구장 풍경

주말 10경기서 10만 관중 찾아

지난 4월23일, 24일 주말 10경기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았다. 야구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영원한 라이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던 지난 주말 잠실야구장에는 외야 쪽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매웠다. 육성응원이 가능해지자, 각 팀 응원단장은 관중들에게 2년 넘게 응축시켰던 함성 소리를 내도록 요구했다. 관중들의 함성은 그 어느 만 원 관중 때보다 크고, 진했다. KBO와 구단, 선수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놀란 듯한 모양새다. 아마 있고 있었던 함성의 반가움을 느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 이후 일일 최대 관중은 지난 9일 6만7737명이다. 김광현이 복귀한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는 무려 2만 1005명의 구름 관중이 모였다. 이제 육성응원이 시작됐고 본격적인 순위 싸움과 선수들이 기록 경쟁을 돌입하면, 더욱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구장에는 지난 주말 이틀동안 3만2647명이 찾았다. 이틀동안 5개 구장에 모인 관중

은 10만3510명이다. 지난 23일 결승 홈런을 터뜨린 두산 김재환과 데뷔 첫 승을 신고한 최승용은 경기 직후 히어로 인터뷰에서 팬들이 자신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했다. 팬들 역시 김재환이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지난 24일 결승타를 날린 LG 오지환은 “팬들의 육성응원이 너무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LG 팬들은 지난 23일 패배를 만회하자, 엄청난 함성을 쏟아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제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래야 야구장을 떠난 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KBO는 ‘팬 퍼스트’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팬 사인회 등 팬 대면 이벤트도 다시 시작했다. 대면 이벤트는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대화 및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잠실구장에는 KBO와 함께하는 40주년 기념 어린이 팬 데이 행사도 열렸다. 경기 개시 직전에는 양 팀 선수들과 응원단이 직접 관중석으로 40주년 공인구 600개를 던졌고, 어린이들이 시구와 시타를 맡아 좋은 호응을 얻어냈다. 뉴스스

“나이 많으면 어때”...이대호·노경은, 펄펄 나는 베테랑

이대호 타율 0.391로 전체 3위 활약...노경은 4G 3승1패 ERA 1.29



시즌 초반부터 '큰 형님'들의 존재감이 심상치 않다. '세월'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베테랑들은 팀 성적까지 견인하고 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예고한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는 현역 마지막 시즌이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 쟁쟁한 방망이를 자랑하고 있다. 25일까지 타율 0.391를 때려내며 부문 3위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선 타율 0.457(35타수 16안타)로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중이다. 이 기간 3



안타를 뽑아낸 경기만 3차례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타격감을 선보였다. 이대호의 화력을 발판 삼아 롯데도 진격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3패로 가장 높은 승률을 올린 롯데는 공동 3위까지 도약했다. '방출생 신화'를 쓰고 있는 노경은(38)은 SSG 랜더스 돌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축 투수다. 지난해 롯데에서 14경기 3승5패 평균자책점 7.35에 그치다 방출된 노경은은 SSG와 손잡

으며 현역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어렵사리 '선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 노경은은 2022시즌 최고의 반전 카드로 떠올랐다.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한 노경은은 올해 4차례 등판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 1.29로 눈부신 성적을 내고 있다. 유일하게 패전을 떠났던 경기였던 22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토크했다. SSG에는 또 다른 베테랑 투수 고효준(39)도 지난해 LG 트윈스에서 뛰다 방출돼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그는 올해 3경기에서 2%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실점하지 않았다. 노경은에 고효준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SSG는 16승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LG 트윈스에선 김진성(37)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 역시 지난해 NC 다이노스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맛봤다. 올 시즌을 앞두고 LG와 계약한 그는 9경기에서 8%이닝을 1실점 비자책점으로 책임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100% 소화하고 있다. 아직 예열 중인 베테랑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의 만행이자 톱타자 이용규(37)는 올해 볼넷 15개(2위)를 얻어내고도 타율이 0.203에 그쳐 출루율도 0.337에 머물고 있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39)도 타율 0.182로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뉴스스

안병훈·임성재, PGA 취리히 클래식 14위 마무리



안병훈(31)과 임성재(24) 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이들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TPC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 2라운드 18번 그린에서 라인업하고 있다. 팀으로 경기하는 이번 대회에서 임성재-안병훈은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전날 공동 28위에서 공동 1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임성재는 22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TPC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 2라운드 18번 그린에서 라인업하고 있다. 팀으로 경기하는 이번 대회에서 임성재-안병훈은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전날 공동 28위에서 공동 1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대회 마지막날 2타를 줄이는데 그쳐

아쉽게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취리히 클래식은 팀 플레이로 열린다. 페덱스컵 대회 경기 중 유일하게 팀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1, 3라운드는 두 선수가 각자 볼을 쳐서 더 좋은 스코어를 팀 성적으로 삼는 포볼 방식이며, 2, 4라운드는 두 선수가 번갈아 볼을 치는 포섬 방식이다. 패트릭 캔틀레이와 젠더 쇼플레(이상 미국) 조는 최종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던 캔틀레이는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쇼플레는 PGA 투어 통산 5승을 가져갔다. 샘 번즈와 빌리 호셀(이상 미국) 조는 마지막 날 4타를 줄이며 추격을 했지만, 결국 27언더파 261타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뉴스스

시즌 최고 성적 박인비 “어려운 코스서 선전”

LA오픈 공동 3위...최혜진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꾸준한 성적 유지할 것”



박인비가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2022 디오 임플란트 LA오픈 최종 라운드 1번 그린에서 퍼팅하고 있다. 박인비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인비(34)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에서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인비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를 쳐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7언더파 277타를 친 박인비는 공동 3위에 올라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박인비는 “꾸준히 잘 했지만 확실히 까다로운 코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이저 대회를 앞둔 박인비는 “여름 시즌으로 들어서게 되어 기대된다.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낼 만큼 컨디션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다. 오늘 좋은 성적으로 끝낸 것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최혜진(23), 김세영(29), 최은정(32), 강혜지(32)는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를 쳐 공동 6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최종 라운드에서 무려 5타를 줄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혜진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3라운드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범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은 마지막 날에도 무려 4타를 잃어 최종합계 2언더파 282타로 공동 21위로 떨어졌다. 뉴스스